

[서 평]

## 북한의 베트남전쟁 참전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 연구

- 이신재, 『북한의 베트남전쟁 참전』(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

이한우\*

이신재 박사가 베트남전쟁과 관련하여 대작을 냈다. 그간 연구자들은 베트남전쟁과 관련하여 전쟁의 성격, 한국군의 베트남전 파병의 원인, 베트남전쟁의 동아시아 정치에 끼친 영향 등에 집중하여 연구하여 왔다. 더불어 냉전체제 하에서 베트남전쟁이 한반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기에, 연구자들은 북한의 베트남전쟁과의 연관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근거자료의 미비로 인해 그 전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신재 박사가 이미 북한 공군의 베트남 참전에 대한 연구논문을 출판하였고,<sup>1)</sup> 이를 포함하여 이번에 북한의 베트남전쟁 참전 상황을 총괄하는 연구로 큰 연구성과를 냈다. 이는 세계 베트남전쟁 연구계의 공백을 메꾸는 쾌거다.

이 저서는 북한의 베트남전쟁 참전의 배경, 북한의 베트남전쟁 참전 및 베트남 지원 현황, 베트남 주재 한국 군인 및 외교관에 대한 북한의 남북 활동, 북한 참전의 결과 등으로 구성되었다. 본 평자는 논리적 구성, 자료 구성, 베트남전쟁 이해의 측면에서 이 저서를 검토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교수

1) 이신재, “북한 공군의 베트남전쟁 참전,” 『현대북한연구』, 제19권 3호(2016).

## 논리적 구성의 측면

저자는 베트남전쟁 시 베트남에 파견된 북한군은 공군전투부대, 심리전 부대, 특수전부대, 고사포 부대 및 공병부대 등이었다고 한다. 베트남 국방부 군사역사연구소 자료는 1967년 북한군 공군 조종사 수명이 훈련, 전투경험 획득, 전투 참가를 위해 베트남에 파견되었다고 기술하였고, 더불어 북한이 띠어응우옌(Tay Nguyen: 베트남 남부 내 서부 산간지대) 및 5군구 전선에 간부들을 파견하여 ‘남조선’ 군인들에 대한 선전 공작을 연구하고 지원하였다고 간략히 기술하였다.<sup>2)</sup> 공군 이외 부대에 관한 베트남측 자료가 없기에, 여기에서는 베트남측이 일부 공개한 공군 조종사 관련 자료를 들어, 저자의 주장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저자는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북한 공군 병력을 조종사 연인원 800명, 기타 인원 200명, 합계 1,000명으로 본다. 그 근거로 탈북 조종사 이철수의 주장을 들고 있다. 물론 저자가 이철수의 증언뿐만 아니라 탈북 조종사 이웅평의 증언도 들었고 기타 자료도 동원하여 제시했는데, 저자가 주로 이철수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생각된다. 저자는 한번 파견시 공군 1개 비행연대 60명을 기준으로 3-6개월간의 파견기간을 고려하여 환산한 숫자 연인원 800명을 베트남에 파견된 북한 공군 조종사의 수라고 잡았다. 그러나 저자가 북한군 조종사 파견기간을 1966-1972년간으로 전쟁 후기까지로 잡은 것은 근거가 부족하며, 북 베트남에 북한군 조종사 60명 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했으리라는 근거도 없다. 베트남측 자료로 이 사실을 밝히기에는 아직 이르다. 베트남측 자료는 공군 조종사 및 관련 인원이 150명 정도 껍(Kep) 비행장에

2) Bo quoc phong Vien lich su quan su Viet Nam, *Lich su Khang chien chong My cuu nuoc 1954-1975* [구국 대미 항전 역사, 1954-1975], tap V Tong tien cong va noi day nam 1968(Ha Noi: Nxb Chinh tri Quoc gia, 2001), p.271.

주둔했다고 전한다.<sup>3)</sup> 베트남측의 응우옌티마이화(Nguyen Thi Mai Hoa)는 반띠엔중(Van Tien Dung) 대장 관련 자료를 인용하여, 1966년 9월 30일 북한-북베트남 협정서에 따라 그 해 10월 20일 384명이 베트남에 입국하였는데, 그 중 96명이 공군조종사였으며, 그 외에도 선전 및 방송 전문가 35명이 입국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1968년 1월까지 조종사 46명을 포함한 북한군 185명이 베트남에 있었고, 1968년 말까지 5회 교대가 이루어졌는데 조종사 31명을 포함한 북한군 159명이 베트남에 있었다고 한다.<sup>4)</sup> 이를 보면, 베트남에 파견된 북한군 공군조종사 및 관련 인원이 연인원으로 수백명이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관련 정보가 단편적이어서 단언하기 어렵다.

저자는 북한 공군 조종사 파견 원인으로 중국과 소련의 조종사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북베트남의 요구와 북한군의 전투훈련이라는 요구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본다. 당시 중국과 소련은 군수물자 및 경제적 지원을 했지만 공군 조종사를 파견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베트남측은 북한의 공군 조종사 파견이 전투경험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sup>5)</sup> 이외 북한의 심리전 부대, 특수전 부대, 방공포대 등의 베트남 내 활동에 관한 저자의 주장은 대체로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하나, 그 규모가 수백명이었으리라는 근거는 아직 부족하므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

3) VNExpress, 2012. 8. 6, “Nghĩa trang liệt sĩ Trieu Tien o Bac Giang,” [박장의 조선 열사 묘지].

4) Nguyen Thi Mai Hoa, *Cac nuoc Xa hoi chu nghia Ung ho Viet Nam khang chien chong My cuu nuoc (1954-1975)* [구국 대미 항전 베트남 옹호 사회주의 국가들 (1954-1975)](Ha Noi: Nxb Chinh tri Quoc gia, 2013), pp.317-318.

5) *Cong an nhan dan*, 2013. 6. 2, “Chuyen chua ke ve nghĩa trang liệt sĩ Trieu Tien,” [조선 열사 묘지에 관한 아직 말 못한 이야기].

## 자료 구성의 측면

저자가 자료를 추적하는 작업은 치밀하였다. 그는 남북한 자료, 영문 자료, 일본 자료, 베트남 자료 등 현재 획득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려고 노력하였고, 탈북자들의 증언을 청취하여 크로스 체크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북한의 1차 자료를 비롯하여 베트남전쟁 관련 북한 문헌을 폭넓게 수집한 것은 저자의 큰 업적이다. 아쉬운 점은 베트남어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저자의 주장을 완전히 신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다.

가령, 저자는 1966-72년간 북한군 공군 연인원 1,000명 정도가 북베트남에 파견되었다고 하였다. 북한 공군의 베트남 파견과 관련한 베트남 언론보도를 보면, 북한 공군의 북베트남 파견기간은 1965-69년 간이었고 파견인원은 150명 정도로, 이들은 깡(Kep) 공군비행장이 있는 박장(Bac Giang) 성 소재 923 공군중단(空軍中團, 사단?)에 배속되었다.<sup>6)</sup> 이 가운데 87명이 전투인원(조종사)이었고, 베트남은 이들 중 14명에게 미그17B, 10명에게 미그17C를 배정하여 전투에 참가하게 하였다. 113명은 김창선 상령(대령?)의 지휘 하에 참모, 정치, 군수지원 등 역할을 수행했다. 1966-69년간 베트남은 미군기 222대를 격추했는데, 이 가운데 북한군 조종사들이 26대를 격추하였다고 한다. 북한 공군은 전투경험을 얻기 위해 베트남전에 참전하였고, 북베트남이 전투기를 비롯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였다고 한다.<sup>7)</sup> 이 보도가 박장 성에 주재했던 북한 공군에 대해서만 기술한 것이어서, 여타 지역 공군 기지에 있었을 수 있는 북한군 상황을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이신재 박사가 북한 공군은 1차 하노이 북부 노이바이 비행장에 주둔하다가 깡 비행장

6) 이 보도도 부정확하다고 판단한다. 북한이 북베트남에 공군을 파견한 것은 1966년 9월 30일 협정 체결 이후일 것이다.

7) *VNExpress*, 2012. 8. 6.; *Cong an nhan dan*, 2013. 6. 2.

으로 이동하였다고 하였고 여타 지역에 주둔했다는 정보를 제시하지 않은 점을 받아들인다면, 북한 공군이 여타 지역에 주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까지의 정보로는 베트남에 파견된 북한 공군 조종사수를 150-200명 정도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자가 부록에 실은 1차 자료들은 이 연구의 근거로서 뿐만 아니라 향후 연구 자료로서 값진 것이다. 특히, 북한-북베트남 간 군사지원협정에 관한 '제3국' 자료는 매우 값진 것이다. 저자가 이를 기반으로 하고 여타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베트남전쟁 당시 북한군 지상군 2개 대대가 북베트남에 파견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북한-북베트남 간 군사협정 체결과 지상군 파견의 개연성은 있지만, 보완된 자료를 통해 좀 더 신중하게 결론에 이르러야 하리라고 본다.

## 베트남전쟁에 대한 이해의 측면

저자의 베트남전쟁 시기 구분은 무리한 것이라고 판단한다(17-18쪽). 일반적으로 제2차 인도차이나전쟁으로 불리는 베트남전쟁을 제2차 전쟁(1964-73년간), 제3차 전쟁(1974년 12월-1975년 4월)으로 구분한 것은 국제전과 국내전을 구분하기 위한 구분법이라고 이해되나, 어쩐지 어색하다. 제2차 인도차이나전쟁은 기본적으로는 남북 베트남 간 전쟁이며 여기에 국제전 성격이 부가되었다고 하는 게 옳을 것이며, 그 기간도 1964년 또는 1965년부터 1975년 4월 통일되기까지 기간을 일컫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저자는 이 저서의 앞부분에서 베트남전쟁 기간 중 소련과 중국이 북베트남 지원에 대해 소극적이었다고 적어, 독자들로 하여금 그 지원 규모가 매우 약소했을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베트

남전쟁 기간 중 소련과 중국의 북베트남에 대한 지원은 적지 않았다. 소련은 북베트남에 1955-74년간 무상원조 13억 6,500만 루블 및 장기차관 4억 6,600만 루블을 제공하였고, 중국은 같은 기간에 무상원조 25억 7,700만 루블 및 장기차관 2억 9,500만 루블 상당액을 제공하였다.<sup>8)</sup> 북한은 1965-73년간 4,180만 루블을 북베트남에 원조하였을 뿐이다.<sup>9)</sup> 더불어 중국과 소련의 무기지원은 북베트남에 결정적으로 중요했다. 전투기만을 보더라도, 1955-75년간 소련은 316대, 중국은 142대를 북베트남에 제공하였다.<sup>10)</sup>

저자가 베트남 전공자가 아니어서 생기는 오기들이 몇 군데 눈에 띈다. 베트남어 고유명사 표기 문제에 대해 전공자로부터 자문을 받아 바로 적었으면 더 좋았겠다 싶다. 가령, 북한 주재 북베트남 대사들의 성명은 베트남어 원문을 찾아 한글 발음 표기가 가능하였을 것이다(41쪽). 또한, 프랑스가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를 침공하기 시작한 것은 1858년이나, 저자가 이를 1856년으로 오기하였다(16-17쪽). 이외에도 조그만 오류들이 더 눈에 띈다.

## 과 제

본 평자의 비평으로 이신재 박사의 연구성과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본 평자는 단지 불확실한 부분에 대한 근거를 더 확보하는 작

8) Nguyen Thi Mai Hoa, *Cac nuoc Xa hoi chu nghia Ung ho Viet Nam khang chien chong My cuu nuoc (1954-1975)*, p.376.

9) 도미엔, “1975년 베트남전 종전과 북한정부의 대응,” 『이화사학연구』, 제48집(2014), 100쪽.

10) Nguyen Thi Mai Hoa, *Cac nuoc Xa hoi chu nghia Ung ho Viet Nam khang chien chong My cuu nuoc (1954-1975)*, p.380. 이신재 박사는 장샤오밍(Zhang Xiaoming, 2000)의 연구를 인용하여, 항공기수를 소련 제공 340대, 중국 제공 160대라고 하였다(224-225쪽).

업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베트남어로 된 자료의 추가 확보가 필수적이다. 현재 확보할 수 있는 베트남어 문헌은 약소하다. 그나마도 산만하게 서술되어 있어, 북한의 베트남전 참전의 전모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예컨대 베트남 내 파견된 북한군 공군 조종사의 숫자를 특정 시기별로 몇 번 제시하지만, 이를 읽어보아도 처음부터 끝까지 파견된 북한군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 책의 저자도 베트남어 문헌을 인용하면서 이를 체계화시키지 못했다. 이제까지 확보된 베트남어 문헌은 매우 적으며 체계적이지 않다. 단지, 앞서 언급한 응우옌티마이화(Nguyen Thi Mai Hoa, 2013)의 연구가 북한 공군의 북베트남 파견 규모에 대한 초보적 정보를 제공하고, 도미엔(2014)이 베트남 제3국가문서고에서 확보한 자료가 그나마 북한의 베트남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규모를 일별해볼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쩌꾸앙민과 응우옌티탐(Tran Quang Minh and Nguyen Thi Tham, 2016)도 도미엔(2014)이 활용한 자료와 같은 자료를 인용하여 북한이 1965-72년간 북베트남에 4,070만 루블을 원조하였다고만 언급하였으며,<sup>11)</sup> 프리브나우(Pribbenow, 2003)의 연구를 인용하여 북한이 공군 조종사 약 200명을 북베트남에서 전투에 참가시켰고 최소한 2개 대공포대를 운용하였다고 하였다. 그 밖의 베트남어 자료로는 북한의 베트남전쟁 참전에 대한 전체상을 그리기가 어렵다. 또한 베트남 내 북한 심리전 부대의 활동 등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어 관련 자료를 영구히 확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는 미국의 문서고를 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도 그 역사적 풍경을 전체적으로 그리기에는 역부족이다. 남은 과제는 미국 내 문서고 보유 자료와 베트남 내 자료를 가능한 한 더 확보하여 크로스 체크하는 일이다.

11) 도미엔(2014)은 이 자료를 먼저 인용하며, 북한이 1965-73년간 북베트남에 4,180만 루블을 원조하였다고 하였다. Tran Quang Minh and Nguyen Thi Tham, "Vietnam-North Korea Relations: Some Remarks over the Last 65 Years and Prospects," 『동아연구』, 제35권 2호(2016), 357-358쪽.

